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 또래 환경이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Warmth, Communication, Peer Environment and Their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 公 仁 淑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In Sook, Kong

이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국민학교 3, 4학년 19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과 또래 환경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분석을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포, 최저값, 최소값,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검증, Cronbach의 α 값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 정도는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 중 또래의 지지와 교환적 협동은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 문제의 제기

학동기 아동에게 또래와 부모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와 또래는 아동에게 역할수용 기회의 두가지 원천이 되므로, 비록 이러한 기회가 가정과 사회에 따라 다를 지라도, 두 요소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문용린·문미희, 1993).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Piaget에 의해 시작되어 70년대 이후에는 Kohlberg의 이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도덕성 연구 경향은 Kohlberg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이론의 탐색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덕성 개념의 모호성, 도덕성 발달 단계의 위계성 및 보편성과 관련되는 이론적 근거의

문제, 방법론의 타당성 여부 등이 Kohlberg의 이론에 대한 주된 비판점(유안진, 1987 : 83~86)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Turiel등은 도덕성의 영역구분 모형(domain distinction model)을 도덕성 연구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서봉연·송명자, 1988 ; Damon, 1977, 1980 ; Smetana, 1983, 1989 ; Thomas, 1994 : 494). 즉 이들은 도덕성은 사회, 인습적 개념과는 구별되는 특성으로서 유아기부터 아동은 이미 이들 두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고 본다.

이중 Damon(1977, 1980)은 도덕판단 영역을 아동의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이해, 즉 공평성 추론에 국한시켜 연구하였다. 공평성 영역은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이후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비싼 약을 훔치는 것이나, 탈옥수에 대한 신고와 같은 Kohlberg식의 정의 판단보다는 자원을 분배하는 것, 자선을 하는 것, 타인의 행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공평성 결정을 자주 경험한다(Enright, Franklin, & Manheim, 1980). 즉, 아동이나 성인에게 있어서 자원의 분배는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도덕적 판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는 주로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아동의 판단능력이나, 분배 상황의 지각 및 그 상황을 해석하여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단계별로 연구하는데에 주된 관심이 주어져 왔다(김경희, 1991). 우리나라에서도 공평성 추론에 관한 연구는 김미혜(1991, 1992)의 연구에서 발달적 경향이 연구되었을 뿐, 또래, 부모 환경과 관련지어 연구된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동기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인 부모와 또래 환경에 따라 아동의 공평성 추론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에 따른 아동의 공평성 추론은 어떠한가?
-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공평성 추론은 어떠한가?

II. 관련 연구 고찰

1. 공평성추론

아동은 어릴 때부터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문화와 사회조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지향성을 갖게 된다(Turiel, 1980: 69). 이때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빈번히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한가지가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나누기, 교대하기, 도와주기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동의 사회도덕적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다(김미혜, 1992).

인간은 분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분

배를 하지만, 이 방법이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 불공평을 느끼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본 논리가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희, 1991). 공평성과 관련하여 Piaget, Kohlberg 등은 아동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야 공평성 개념을 갖게 된다고 보았으나, Damon(1977)은 4~8세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한 공평성 추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Kohlberg처럼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대신에, 긍정적 정의 개념, 즉 자원이나 보상을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는 아동에게 가설적 분배 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가장 올바른 분배 방법과 분배 결정의 정당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중 무도덕 수준의 아동도 여러 상황에서 공평성 개념을 사용하여 추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아동과의 면담 내용을 이면에 있는 조직화 원리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표 1 에서와 같이 연령에 따른 0-A부터 2-B까지 6개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때 기준 연령은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아동은 동일 연령에서도 다른 수준의 공평성 추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미혜(1991, 1992)가 5~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Damon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공평성 개념은 Damon의 연구 결과보다 조금 늦게 발달하였지만,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향상되는 발달적 현상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공평성 개념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는 7, 8세인 것으로 보이며, 9, 10세가 되어야만 빈번하게 2-A수준의 반응이 나타나고, 특히 2-B 수준은 9, 10세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일단 공평성 추론이 연령에 따라 발달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 후, 비교적 발달된 공평성 추론 수준에 있을 국민학교 3, 4학년(9, 10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공평성 추론에서 개인차를 나타내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과 아동의 공평성 추론
공평성 추론에 대한 기본적 관점은 주로 인지발달

표 1. 공평성 추론 수준

0-A 수준(4세 이하)	공평성과 자신의 욕구가 혼돈되어 있다. 이때 추론은 소망을 정당화하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소망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예 : “내가 갖고 싶으니까, 가져야겠어.”).
0-B 수준(4~5세)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지만, 선택에 대한 추론은 외적, 관찰 가능한 실체(예 : 성별, 연령 등)에 기반해서 정당화된다(예 : “우리가 여자니까, 더 가져야겠어.”).
1-A 수준(5~7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위에서의 엄격한 동등 개념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수준의 아동은 동등한 배분을 함으로써 불평, 싸움 등의 갈등을 막는 것으로 여긴다(예 : “싸우니까,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1-B 수준(6~9세)	행위에서의 호혜성 원리를 통해 공평성을 판단한다. 이 수준의 아동은 바람직한 특성(장점, 기여)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그러나 한가지 종류의 주장만을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추론이 일방적이고 융통성이 없다(예 : “00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가져야 한다.”).
2-A 수준(8~10세)	다른 사람이 상이하면서도 각자의 정의에 타당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도덕적 상대주의가 발달한다. 이 수준의 아동은 보상이 인간의 동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예 : 빈자)의 주장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 수준에서의 선택은 경쟁적인 주장을 타협하려는 시도이다(예 : “00이가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어야지요.”).
2-B 수준(10세 이상)	모든 경쟁적인 주장에 대해 상대적 가치를 두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을 더 고차적으로 판단한다. 즉 모든 경쟁적인 주장과 특정한 상황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동등성과 호혜성을 조화시키려한다. 이 수준의 아동의 선택은 단호하고 분명하나, 정당화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출처 : Damon, 1980.

이론에서 제공되었다. 따라서 흔히 자녀의 도덕성 발달을 부모에 대한 동일시나 모델링으로 설명하는 정신분석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의 입장과는 달리,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양육이나 부모의 영향에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었다(Windmiller, Lambert, & Turiel, 1980 : 13). 즉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도덕성 발달이 인지적 불평형에 의해, 보다 진보된 구조 또는 새로운 단계로 전이된다(Piaget, 1972 ; Turiel, 1974)고 보았다. 그들은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상호성”을 경험하며, 새로운 능력에 어울리는 의사결정 능력, 자율적 관점의 점진적 적응, 협동 능력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주로 또래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어 왔다. 즉 이들은 집단의 비권위적인 속성 때문에 또래 환경이나 kibbutz 환경에서 아동의 도덕

추론이 원활해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아동은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동의 도덕 추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Kruger, 1992). 또한 사회측정적 지위를 역할수용 기회의 지표로 보았을 때, 10세 때 또래 사이에서 잘 어울리는 아동은 고립된 아동에 비해 보다 성숙한 도덕 추론을 하였다(Colby, Kohlberg, Gibbs, & Liberman, 1983).

Bear와 Rys(1994)는 133명의 2,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도덕추론과 교실에서의 행동, 사회측정적 지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쾌락적 추론을 하는 남아의 경우, 사회적 역량의 부족, 부당한 행동, 낮은 사회적 선호와 관련되었다. 이상의 또래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또래 환경과 아동의 공평성

추론을 직접 관련시킨 연구는 없으나, 아동이 또래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평성 추론이 발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과 아동의 공평성 추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아동의 도덕 추론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즉 이들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부모가 권력과 지위에서, 또래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의 도덕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역할수용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의 일부분(Hetherington, & Parke, 1986 : 676)으로, 특별히 중요하거나 구별되는 경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심이 많으며, 아동에게 도덕적 성숙성을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며, 가족이 지속적으로 애정적 유대로 묶여진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부모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최소화된 영향만을 준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Walker, & Taylor, 1991).

김광웅과 방은령(1992)은 아동기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람의 경험이 63.5%로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송순(1994)은 4, 5, 6 학년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회귀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유의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부모를 통해 역할 수용을 학습함으로써, 도덕성 발달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연구한 결과, 부모는 자녀의 도덕 추론을 돕는 기제인 역할수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Haan, Langer, & Kohlberg, 1976).

결과적으로 부모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을 고무하고, 아동에게 책임에 대해 보상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행위의 결과를 지적해 주고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정서적 온정을 나타낼 때 아동의 역할수용 기회는 커진다(Thomas, 1992 : 504~505)

고 한다. 실제로 문용린·문미희(1993)는 한국 청소년의 도덕 판단력 발달을 다룬 연구를 종합하여 개관한 결과, 가정환경 변인 중 심리적 과정 변인이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발달에 정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가정환경 변인중 친애-거부차원과 개방-폐쇄차원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개방적이고 친애적인 가정환경이 도덕추리를 촉진하였다(이현우, 1988). 그러나 여인숙(1985)은 아동의 가정환경과 도덕적 판단 능력 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접적으로 부모의 온정, 의사소통과 아동의 공평성 추론발달을 다룬 연구는 없다. 또한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이 아동의 도덕 추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불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내 국민학교 3, 4학년 남녀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3, 4학년 아동의 경우 공평성 추론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발달된다(김미혜, 1992)는 점과 둘째, 국민학교 3, 4학년의 경우 비교적 부모와 또래의 영향력이 모두 크게 작용한다(Berndt, 1979)는 점과 질문지 답변 능력이 적어도 3학년은 되어야 충분하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이 86명(50.8%), 여학생이 93명(49.2%)로 거의 동수였으며, 3학년이 81명(42.6%), 4학년이 99명(57.4%)이었다.

2. 측정 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선행 연구(공인숙, 1989; 김미혜, 1992; 박성연, 1989; 이주리, 1994; Damon, 1977)를 참고하여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 (2)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 (3) 아동의 공평성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표 2. 아동이 지각한 부모 및 또래 환경의 전반적 경향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가능점수범위
부 모	온정	32.52	4.52	10-40
	의사소통	32.60	5.12	10-40
또 래	지지	17.91	4.85	8-32
	교환적 협동	8.60	2.17	3-12
	공동 활동	10.38	2.43	4-1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민숙(1989), 박성연(198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때 각 문항에 대한 안면 타당도 검증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정과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는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총 문항수는 20개이며, 4점 Likert 방식이다. 온정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4$,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8$ 이었다.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 척도는 이주리(199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래 환경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 중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은 8문항($\alpha=.81$)이며, 공동 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4문항($\alpha=.54$), 교환적 협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3문항($\alpha=.70$)이었다.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Damon(1977: 94)의 연구에서 사용된 딜레마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척도를 번안한 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응답자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인의 평정자가 분배 결정을 정당화한 내용을 분석하여 정하였다. 이 때 평정자간 일치도는 .80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예비조사는 1995년 2월 8일에 서울의 S국민학교에서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1995년 2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서울의 S국민학교와 N국민학교에서 3, 4학년 각 1반씩을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 절차는 아동에게 익숙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임선생님이 한 문항씩 읽어가며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부실 기재된 경우와 편부모 슬하의 아동의 경우인 21

부를 제외한 190 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포, 최저값, 최소값을 구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 및 또래 환경에 따른 공평성 추론 정도는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검증을 통해 알아 보았다¹⁾ 이 때 공평성 추론 수준은 각 수준에 따라 1~4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 또래 환경과 공평성 추론 수준의 전반적 경향

표 2를 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의 평균값은 가능점수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아동이 지각한 또래의 지지의 평균값은 17.91로 가능 점수의 중간값보다 낮았으며, 교환적 협동과 공동 활동 점수의 평균값도 중간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이 부모로부터는 높은 온정과 의사소통의 축진을 받는다고 여기는 반면에, 또래로부터는 지지를 적게 받으며, 협동과 공동 활동도 중간 정도로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4학년 아동의 경우 자기중심성이 특징인 0 수준의 추론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Damon

1) 공평성 추론 수준은 서열변수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일원변량 분석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비모수 통계 방법인 크루스칼-월리스 검증을 사용한 결과도 일원변량 분석 결과와 일치하므로, 결과에서 모수 통계 처리 값을 제시하였다.

표 3. 아동의 공평성 수준별 빈도 및 백분율

연령 추론수준	3학년	4학년	계
0-A	0 (0.0)	0 (0.0)	0 (0.0)
0-B	0 (0.0)	0 (0.0)	0 (0.0)
1-A	15 (17.6)	7 (7.3)	22 (12.2)
1-B	12 (14.1)	16 (16.7)	28 (15.5)
2-A	30 (35.3)	43 (44.8)	73 (40.3)
2-B	28 (32.9)	30 (31.3)	58 (32.0)
계	85 (47.0)	96 (53.0)	181 (100.0)

(1980b), 김미혜(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1-A수준은 3학년의 경우는 17.6%, 4학년은 7.3%로 나타나 3학년이 좀 더 많았다. 응답의 예로는 서로 싸우니 무조건 똑같이 나눈다는 응답이 많았다. 1-B수준의 추론은 나타난 결과에서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을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수준의 반응은 4학년에서 약간 더 많았다. 2-A수준의 추론은 4학년에서 약간 더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2-B수준은 3, 4학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표본 크기의 차이나 연구방법의 차이로 동일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김미혜(1992)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3, 4학년 아동은 주로 2-A, 2-B 수준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나타내지만, 3학년 아동의 31.7%와 4학년 아동의 24%는 1-A, 1-B수준을 보이고 있다.

2. 또래 환경에 따른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에 따라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²⁾을 하였다. 또래의 지지와 공동활동, 교환적 협동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상, 중, 하 세집단³⁾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아동이 또래의 지지, 교환적 협동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달랐다.

Scheffé검증 결과, 또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이 낮게 지각한 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평성 추론을 나타냈다. 또한 교환적 협동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중간 정도나 낮게 지각하는 아동에 비해 높은 공평성 추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공동 활동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공동활동은 애정이나 관심과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동적 참여를 포함하므로, 공평성 추론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또래 관계의 특성이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므로, 새로운 대안적 탐색과 실험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아동의 역할수용 기회 제공의 중요한 기제가 되어 도덕 추론을 돕는다는 선행 연구(Bear, & Rys, 1994; Colby et al, 1983; Kruger, 1992)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온정,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공평성 추론수준

부모의 온정,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다. 온정과 의사소통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상, 중, 하 세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아동이 부모를 온정적, 의사소통적으로 지각하는 것에 따라 아동의 공평성추론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이것은 도덕성 발달에서 부모의 영향이 특별하지 않다는 인지발달론적 입장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공평성 추론은 부모의 온정이나 의사소통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아동의 연령이나 또래의 영향이 크다는 선행 연구(여인숙, 1985; Kruger, 1992)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또래 환경 척도는 연속변수이므로 회귀분석을 할 경우 검증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포도 결과 변수간의 선형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게 되었다.
3) 상집단 > 평균 - 1/2 표준편차, 평균 - 1/2 표준편차 < 중집단 < 평균 + 1/2 표준편차, 하집단 < 평균 - 1/2 표준편차로 하였다.

표 4.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과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

	집단 (점수범위)	빈도	평균	S.D	F	Scheffe검증
지지	상 (21-31)	57	3.25	.89	6.09**	A
	중 (16-20)	70	2.93	.97		AB
	하 (8-15)	62	2.65	.94		B
	계 (8-31)	189	2.93	.96		
교환적협동	상 (10-12)	70	3.01	.99	3.06*	A
	중 (8-9)	64	3.05	.88		A
	하 (3-7)	55	2.65	.99		B
	계 (3-12)	189	2.92	.96		
공동활동	상 (12-16)	57	2.95	.85	.19	
	중 (10-11)	65	2.86	1.04		
	하 (4-9)	67	2.96	.98		
	계 (4-16)	189	2.92	.96		

*p<.05, **p<.005

표 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과 공평성 추론 수준

	집단 (점수범위)	빈도	평균	S.D.	F
온정	상 (36-40)	61	3.13	.96	2.04
	중 (31-35)	64	2.92	.88	
	하 (17-30)	62	2.79	.99	
	계 (17-40)	187	2.95	.95	
의사소통	상 (36-40)	62	3.00	1.00	1.03
	중 (31-35)	62	3.02	.91	
	하 (17-30)	57	2.79	.94	
	계 (17-40)	181	2.94	.96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3, 4학년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부모와 또래를 설정하고 그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 정도는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 중 또래의 지지와 교환적 협동은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국민학교 3, 4학년 아동의 공평성 추론 발달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또래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런 결과는 공평성 추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즉 부모 환경이 또래와 비교할 때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하지만, 공평성 추론은 호혜성과 동등성에 기초한 사회인지 능력이므로, 자원과 권력에서 불평등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또래 관계를 통해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연구의 대상이 된 국민학교 3, 4학년 아동이 발달적 특성 상 점차 부모의 영향 보다는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시기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결과는 가족 집단과 또래 집단의 기능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핵가족화, 소수 자녀화의 경향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와는 정서적 표현 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또래 집단에서는 사회적인 가치 경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이주리, 1994)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같은 연령의 성원들로 구성된 또래

집단을 통해 인정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게 되므로, 또래 집단에서 지지받는 것이 아동에게 더욱 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연구 대상 아동의 경우,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은 전반적으로 높게 치우쳐 있었다. 반면에 또래 환경은 가능 점수 내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이 부모의 실제적인 온정과 의사소통이기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실제의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을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부모가 아동의 공평성 추론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의 특정 국민학교를 유의표 집하여 수행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세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평성 추론 척도를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평성 추론 척도는 내용분석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 때 평정자간 신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외에도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폭넓은 변수를 도입한 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10(1), 64-78.
- 2) 김경희(1991). 아동의 공정분배에 관한 연구: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김광용·방은령(1992). 아동기의 도덕적 사회화과정. *아동연구* 7, 121-139.
- 4) 김미혜(1991). 아동의 공평성 개념 및 우정 개념의 발달. *아동학회지* 12(2), 5-17.
- 5) _____(1992). 아동의 공평성 개념 및 우정 개념 및 분배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문용린·문미희(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 판단력 발달 연구 개관. *청소년연구* 1(1), 43-57.
- 7)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워크샵. 아동연구를 위한 검사 도구. 85-97.
- 8) 서봉연·송명자(1988). 발달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미국과 유럽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 1-19.
- 9) 송 순(1994).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49-61.
- 10) 여인숙(1985). 아동의 가정환경과 도덕적 판단능력 및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6(1), 75-100.
- 11) 유안진(1987). 인간발달신강. 서울: 문음사.
- 12)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이현우(1988). 도덕 추리와 도덕 판단과의 관계에 미치는 여섯가지 관련 변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Bear, G.G. & Rys, G.S.(1994). Moral reasoning, classroom behavior,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0(5) 633-638.
- 15) Berndt, T.J.(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16) Coie, J. D., Dodge, K.A. & Kupersmit, J. B.(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R. asher & J.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7) Colby, A., Kohlberg, C., Gibbs, J. & Leiberman, M. (1983)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judge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 1-124.
- 18)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19) _____(1980).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1, 1010-1017.
- 20) Enright, R.D., Franklin, C.C. & Manheim, L.A.(1980). Children'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a standardized and objective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16(3), 193-202.
- 21) Hann, N., Langer, J. & Kohlberg, L.(1976). Family patterns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47, 1204-1206.
- 22) Hetherinton, E.M. & Parke, R.D.(1986). *Child Psychology: A contemporary viewpoint*(Thi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23) Kohlberg, L.(1969) Stage and sequence :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e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Rand McNally & Company.
- 24) Kruger, A.C.(1992). The effect of peer and adult-hild transductive discussions on moral reasoning. *Merrill Palmer Quarterly* 38(2), 191-211.
- 25) Piaget, J.(1977). The development of thought :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 New York : Viking.
- 26) Smetana, J.G.(1983). Social-cogitive development : domain distinctions and coordinations. *Developmental Review* 3, 131-147.
- 27) _____(1989). Toddler social interactions in the context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in the home.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499-508.
- 28) Thomas, R.H.(1992). Comparing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3rd Ed.)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29) Turiel, E.(1974). Conflict and transition in adolescent mor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5, 14-29.
- 30) _____(1980). The development of social-conventional and moral concepts. In M. Windmiller, N. Lambert, & E. Turiel(Eds.), *Moral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Boston : Allyn and Bacon. pp69-106.
- 31) Walker, L.J. & Taylor, J.H.(1991). Family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2(2), 264-283.
- 32) Windmiller, M., Lambert, N. & Turiel, E.(1980). *Moral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Boston : Allyn and Bacon.